

소·부·장 中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집중 지원

중기부, 7호 '자상한 기업'에 삼성전자 선정 ... 중기중앙회·삼성전자와 상생 협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삼성전자가 힘을 모아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 간 '소재·부품·장비 중심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를 7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상한 기업이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프로그램,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 및 미래 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민간기업으로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9월까지 총 450억원을 투입, 2165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지원 기업들이 공몽도 공정 최적화와 데이터 분석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번엔 고도화 기술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고도화 기술을 지원한다. 기술 지원에는 스마트공장 3단계 이상 고도화를 위한 전담 인력 배정, 스마트공장 종합상담센터인 '스마트 365센터'(가칭) 설치, 현장 중심



지난 1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의 맞춤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업종·조합별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해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제조 데이터센터와 연결·이관하는 계획도 담겼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판로 지원 전담조직'을 통해 제품의 바이어 매칭과 판로도 지원한다. 또 매년 '스마트공장 엑스포'를 개최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과 글로벌 바이어와의 연결도 도울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북과 부산, 구미에 있는 국

립공고 3개교에 특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 시스템과 센서 활용, 장비제어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체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더 똑똑한 스마트공장'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건의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지원한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이 제조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